

세계경제의 성장동력, 신흥시장

-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진출확대를 중심으로 -



2012. 3. 27

KOTRA 시장조사실

윤재천 실장

1 2012 세계시장 조망

2 신흥시장의 중요성

3 신흥시장의 주요 특성

4 아시아 3대 주력 신흥시장

- 1) 인도 진출환경
- 2) 인도네시아 진출환경
- 3) 미얀마 진출환경

5 신흥시장 진출방안

2012 세계시장 조망

✓ 여전히 무겁게 드리운 불확실성의 먹구름

■ 低성장 국면에 진입한 세계경제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IMF) : 4.0%('11.9) → 3.3%('12.1)

■ 美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위기 국면 지속

-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우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 위험 요소의 상존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전망

- 주요국 경제 부진 지속, 중동 리스크 등

✓ 선진국發 경기 침체로 둔화되는 성장세

-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도 대세회복 속단은 곤란
- 유럽, 3~4월 집중된 부채상환으로 계속되는 위기설
- 중국, 경착륙 우려로 경기부양 불가피
- 일본, 제조업 위기와 무역적자국 전략
- 신흥국, 물가상승과 경기 하락세



✓ 불확실성 확대를 대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증가

-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증가세 둔화 등



■ 향상된 경쟁력과 강화된 체질

- 기업 경쟁력 향상, 외환보유고 증가, 양호한 정부재정



■ 미래성장 지속을 위한 당면 과제 극복

- 양극화,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2 **신흥시장의 중요성**

G20 서울정상회의 [2010.11.12]



✓ G20중 11개국이 신흥국

» 주요 신흥시장 관련 용어

- **BRICs (골드만삭스, 2003년)**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Next 11 (골드만삭스, 2005년)** :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터키,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 **VISTA (BRICs Research Inst., 2006년)** :
 -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 **MAVINS (Business Insider, 2010년)** :
 -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 **MIKT (골드만삭스, 2010년)**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 IMF의 선진국 구분 : 34개국 (나머지는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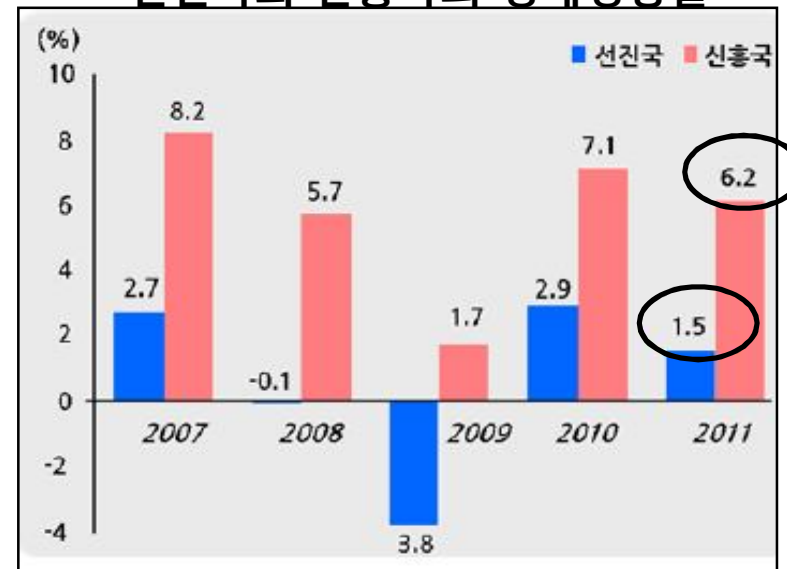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벨기에,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싸이프러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프랑스, 몰타, 독일, 네덜란드, 호주,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체코,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 **한국**, 스위스,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대만, 홍콩, 노르웨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 경제적 중요성 부각

- 글로벌 경제위기 후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
 - 세계 경제성장의 $\frac{3}{4}$ 이상을 신흥국이 기여 (선진국: 1.5%, 신흥국: 6.2%)
- 전세계 GDP 중 신흥국비중은 50.6% 선진국 추월 (2012예측, IMF)
 - 47.9%('10) → 49.0%('11) → 50.6%('12)

- G20중 11개국이 신흥국이며,
중국은 미국과 G2를 형성
 - 전 세계 내수시장 중 BRICs 4개국 비중:
12.9%('07) → 19.7%('11)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 IMF

신흥경제권의 중요성 - 2

선진시장				신흥시장			
국가	GDP	수출	수입	국가	GDP	수출	수입
미국	15,064	1,511	2,314	중국	6,988	1,898	1,743
일본	5,855	800	794	브라질	2,518	250	219
EU	13,348	1,791	2,000	인도	1,843	298	451
한국	1,164	556	524	인도네시아	834	208	172
캐나다	1,759	450	459	터키	763	133	212
호주	1,507	266	236	러시아	1,885	498	310
소 계	38,697	5,374	6,327	사우디 아라비아	560	350	106
글로벌비중	55.3%	27.8%	32.4%	멕시코	1,185	336	341
자료 : IMF, CIA Factbook (2011)				소 계	16,577	3,971	3,554
				글로벌비중	23.7%	20.6%	18.2%

- 선진시장의 GDP비율(55.3%)은 계속 하락추세이며
수출과 수입에서 선진시장의 비율은 각각 27.8%, 32.4%에 불과

신흥경제권의 중요성 - 3

• 신흥시장,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등장

지 역	2010		20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유럽	69,627	24.3%	75,087	7.8%
북미	53,918	31.2%	61,135	13.4%
대양주	13,396	-17.9%	17,065	27.4%
일본	28,176	29.4%	39,680	40.8%
선진시장 소계	165,117		192,967	
아시아	255,178	33.8%	314,006	23.1%
- 중국	116,838	34.8%	134,185	14.8%
중남미	36,187	35.2%	40,131	10.9%
중동	28,369	18%	32,884	15.9%
CIS	22,522	44.3%	25,378	12.5%
서남아시아	14,134	39.9%	15,622	10.5%
아프리카	9,618	13.6%	14,396	49.7%
기타지역	91	19.4%	509	459.7%
신흥시장 소계	337,923		403,246	
전체수출	466,384	28.3%	555,214	19%

전체 수출의
72.6%

자료 :KITA

• 2011 전체 수출 중 신흥시장 비중은 72.6% (2010년 72.5%)

신흥경제권의 중요성 - 4

• 신흥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중요성 급증

순위	국가	신고건수	신고건수 비중	투자금액	투자금액 비중
2	중국	44,586	39.9%	35,997,819	18.9%
5	베트남	6,033	5.4%	7,390,850	3.9%
8	인도네시아	3,941	3.5%	5,700,870	3.0%
11	브라질	461	0.4%	3,808,528	2.0%
15	말레이시아	1,351	1.2%	3,064,650	1.6%
17	인도	1,425	1.3%	2,387,226	1.3%
18	카자흐스탄	478	0.4%	1,922,101	1.0%
19	러시아	999	0.9%	1,843,333	1.0%
20	캄보디아	1,823	1.6%	1,787,432	0.9%
9개 신흥국 소계		61,097	54.6%	63,902,809	33.6%
전세계 투자 총계		111,817	100.0%	190,385,610	100%

- 2011 20大 투자국 중 신흥국 9개국 (선진국 9개국, 2곳은 조세회피처)
- 9개 신흥국 투자대상국이 전체의 54.6%를 차지 (신고건수기준)

3 **신흥시장의 주요 특성**

1.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 신흥국의 중산층 : 2009년 18억명 → 2020년 32억명

- 중국,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2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
 - 경제성장 동력을 수출확대중심에서 내수시장 진작으로 전환
 - 12.5계획에 따른 중·서 내륙개발, 유통현대화, 교통망 확충, 소득 증가등으로 2, 3선 도시로 소비시장이 확대
- 브라질의 중산층 비중, 2002년 43%에서 2009년 54%로 증가
- 중동도 오일머니의 혜택으로 중산층 증가 추세
 - 과거 오일머니 혜택이 일부 계층에 편중, 그러나 최근 자국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

2.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 및 대형 프로젝트 추진

□ 중국

- 7대 신흥전략 산업 및 10대 주력산업 정부주도로 집중 육성
- '09년 정부조달중 건설 프로젝트는 587억 달러

□ 인도

-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IT산업 집중 육성
- 향후 5년간 인프라 개발에 1조달러 투자

□ 브라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 고속철도추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 중동

- 철도, 공항, 도로 등 공공 인프라와 교육, 의료 시설 확충에 집중
 - 우리나라 해외 건설프로젝트 수주액의 75% 차지

3. 자원주도의 경제 성장모델 추진

□ 산유국,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동력 모색

- 과거 산유국은 원유시세의 등락에 따라 경기변동 폭이 컸으나 최근 산업다각화로 유가에 덜 민감하게 반응
- 특히, **오일머니를 원유 대체산업 육성과 국민복지에 적극 활용** 함으로써 경제성장 추진

□ 저개발 자원부국, 자원가격 상승으로 경제성장 기반 마련

- 자원가격 상승,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으로 저개발 자원부국에 대한 ODA 증가, 투자 진출 확대
- 오일달러를 활용한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제 성장의 기반 마련
 - 신규 가스전 개발, 정유공장 건설 (알제리)
 - 원유·가스 해상플랜트 건설 (나이지리아)
 - 화력발전소, 송배전망 건설(가나)

4. 기회의 시장, 그러나 리스크 상존

□ 행정·제도의 투명성 부족

- 통계정보 미비, 공개정보 부족 등 **정보 인프라 취약**
-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에 따른 비즈니스 투명성 결여

□ 정치적, 사회적 불안 상존

- 이집트 민주화 시위, 리비아, 예멘, 알제리 등 인근국으로 확산
- UN, 2010년 6월 이란과의 외환 거래 제한

□ 글로벌 기업 / 토종 기업과의 경쟁

- 글로벌 기업의 진출 러시와 토종기업의 성장으로 경쟁 치열
- 중국 시장,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 및 토종 기업들간 시장 확대경쟁이 가장 치열

※ 한국, 2010년 기준 일본에 이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

4 아시아 3대 주력 신흥시장

-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중요성

1. 인도의 중요성

»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성장 엔진으로 부상

- ✓ 인구 12억 1천만명으로 세계 2위 (평균연령 27세)
- ✓ 가계지출 연간 10%씩 성장, 소비구조 고도화
- ✓ 인도 1인당 소득: 2010년 1100불 → 2039년 40000불
- ✓ 중산층 인구, 2015년 3억명으로 확대 (가구당 연소득 6천불 이상)
- ✓ 2030년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강으로 성장



스마트폰
연68%성장,
'15년 8천만대



2. 인도네시아의 중요성

» 내수시장과 제조업투자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시장

- ✓ 인구 2억 4천만명으로 세계 4위,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국토
- ✓ 구리, 보크사이트, 니켈, 주석, 금 등 자원 풍부
- ✓ 팜(세계1위), 고무, 카카오, 커피 등 농업분야 높은 잠재력
- ✓ 최저 임금 \$200 이내, 외국기업의 공장 이전 활발
- ✓ 내수, 자원, 플랜테이션이 복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인



3. 미얀마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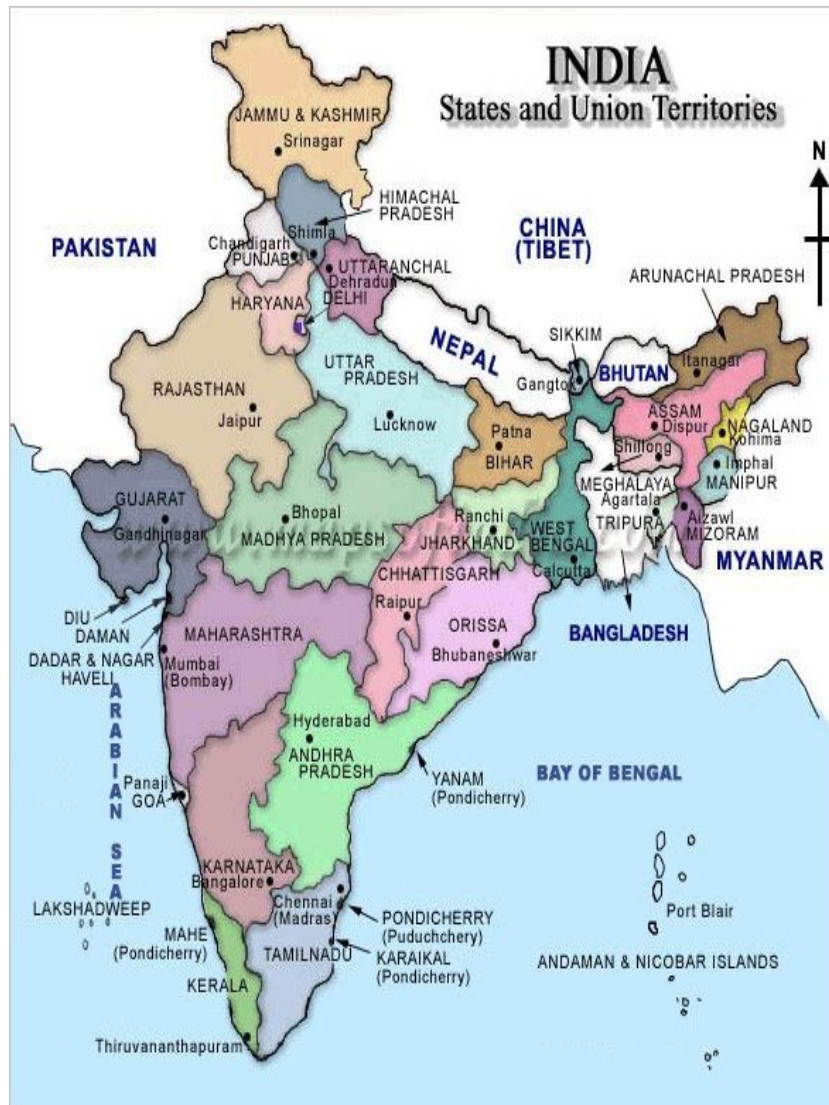
» 경제제재 해제 임박으로 전략적 가치 증가

- ✓ 2011년말 클린턴 방문을 계기로 제재해제 가능성 증가
- ✓ 경제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노동법 등 신정부 개혁정책 추진
- ✓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구리, 니켈 등 천연자원 풍부
- ✓ 동남아 중 인건비 수준 최저로 동남아의 마지막 미개척시장



4 아시아 3대 주력 신흥시장

1) 인도 진출환경



면적 : 남한의 33배 (328만 km²)

지형 : 산악, 사막, 고원, 평야

종족 : 아리안, 드라비다, 몽골 등

종교 : 힌두 82%, 이슬람 11%

정치 : 총리 (싱), 대통령(파틸),

UPA연정이 집권 (2009.5)

행정구역 : 28개주, 7개 연방직할

대외관계 : 비동맹 → 실용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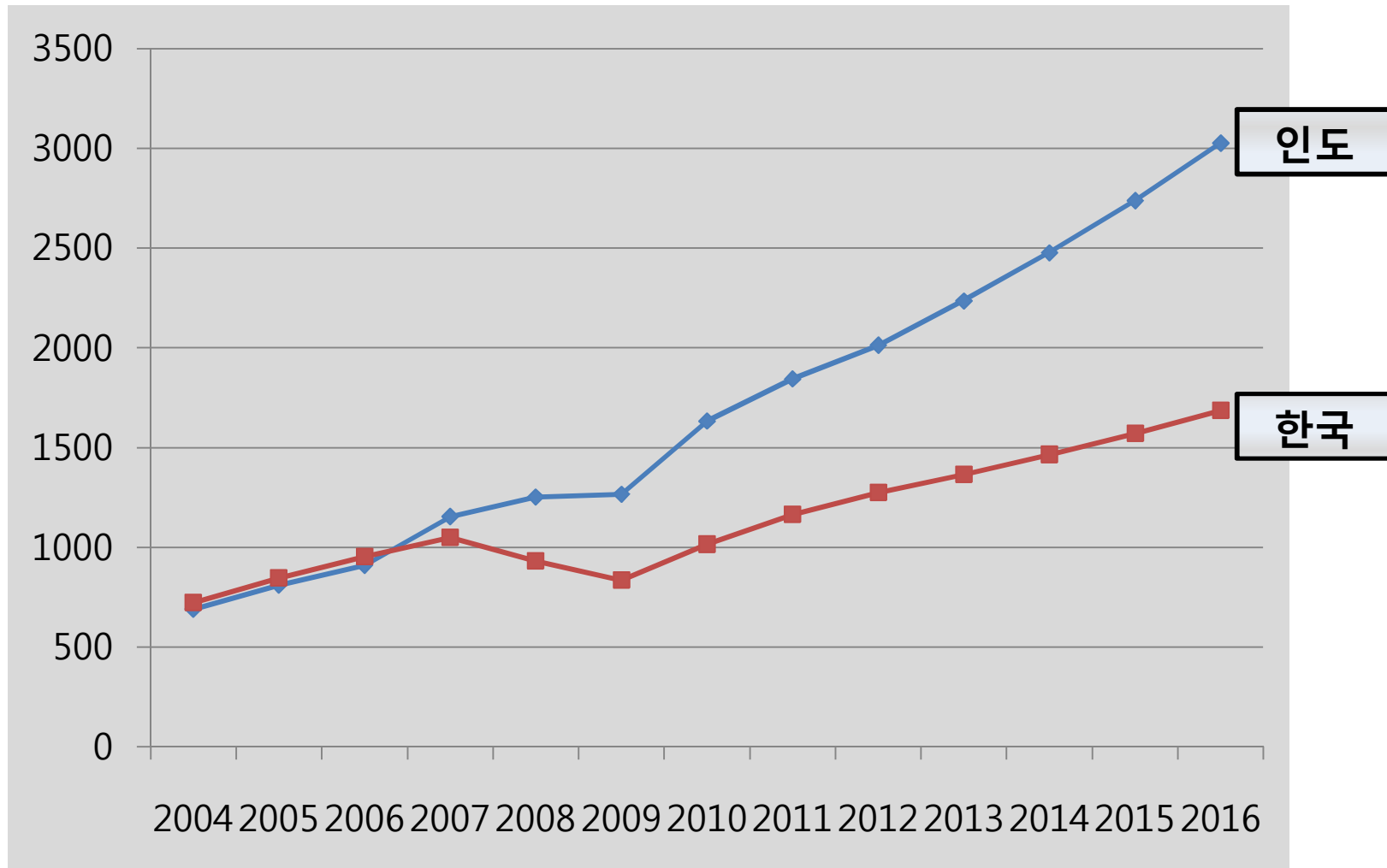
경제체제 : 사회주의→개방(1991년)

언어 : 힌디어 등 공용어 21개

인도와 한국의 경제지표

	인 도	한 국
인구 (2011, 만명)	12억1000만명	4900만명
면적 (in KM ²)	3,280,000 km ²	99,000 km ²
GDP (2011, 억불)	1조8430억불	1조1630억불
GDP 성장률(2011)	7.8%	3.9%
수출액 (억불, 인도:2010, 한국:2011)	2,459	5,565
수입액 (억불, 인도:2010, 한국:2011)	3,593	5,243
외환보유고(2011.5, 억불)	3,115	3,050
PPP of GDP (2011, 억불)	4,469	1,556
1인당 GDP (2011)	US\$1,527	US\$23,749

인도와 한국의 경제규모 비교 추이



✓ 2006년까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컸으나
2020년에는 인도경제규모가 한국의 2배이상으로 성장

인도 소비트렌드의 변화

- ◆ 내셔널리즘 : 인디안 아이덴티티, 인도다움에 대한 자신감
 - 타타의 재규어 및 랜드로버 인수, 2010 Commonwealth게임 개최
- ◆ 영기스탄(Youngistan) : 자녀가 부모에게 구매품목, 브랜드 코치
 - 내일보다는 오늘을 즐김, 저축보다는 우선 구매, 자기욕구가 가장 중요
- ◆ 가정권력구조 변화 : 청소년 역할 증가, 여성/아내 발언권 강화
 - 가족 모두 구매결정에 영향 → 시장 세분화, 타겟 그룹 결정
- ◆ 중소도시, 농촌지역 돈이 넘쳐 소비 폭증세
 - 2,3선도시 및 농촌 소비증가율 대도시보다 높아



Saina Nehwal



◆ 물류 및 유통혁명 본격화

- 홈쇼핑 및 소매유통업, 창고업, 프랜차이즈 등
- 불과 6년 사이 기업형 유통업 4배 성장

[단위 :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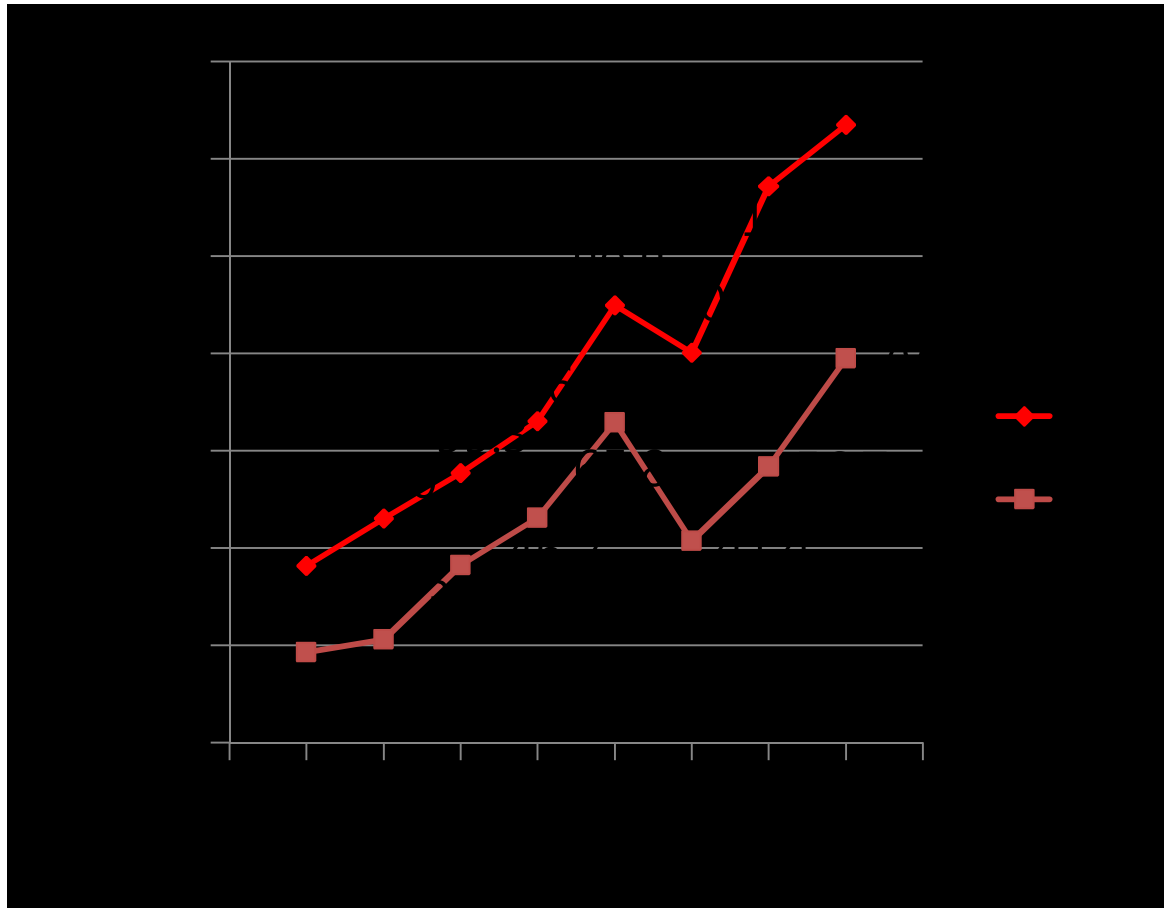
	'04	'05	'06	'07	'08	'09	'10
기업형	61	77	103	145	210	304	441
전체소매유통업	2,022	2,132	2,252	2,387	2,530	2,683	2,843
기업형 비중	3.0%	3.6%	4.6%	6.1%	8.3%	11.3%	15.5%

[자료원 : India Retail Report]

◆ 유통업 개방

- 싱글브랜드 : 지분투자 100%까지 개방(30% 현지조달의무)
- 멀티브랜드 : 지분투자 51%까지 허용하는 것을 추진

급증하는 한-인도 교역



자료 : KITA.net

주요 수출품목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휴대폰 등

주요 수입품목

나프타, 면사,
금속광물 등
기초원자재

상호보완적 교역구조

- 2011년 제9위 수출대상국 (126.8억불, 10.9%증가)
- 2011년 제17위 수입대상국 (78.9억불, 39.1%증가)

인도 진출 한국기업 현황

지역	주요 업종/기업 수	주요 기업	지역	주요 업종/기업 수	주요 기업
델리 인근	전자·기계 : 39 건설·중공업 : 22 무역 : 16 컨설팅 : 12 물류·유통 : 12 이동통신 : 8 기타 : 55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뭄바 이, 뭄 네, 구 자라트 인근	무역 : 14 전자제품 : 9 운송 : 6 자동차부품 : 5 통신 : 4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뭄네공장, CJ-STAR
	총 164개사			총 66개사	
첸나이 인근	자동차 및 부품 : 94 기타 제조 : 20 물류·유통 : 14 건설 : 17 금융서비스 : 26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POSCO	방갈로루 인근	소프트웨어 : 3 전자·기계 : 4 제약 : 2 기타 : 3	LG 소프트웨어, LG CNS, 삼성 소프트웨어, CJ 제약, 대웅제약
	총 171개사			총 12개사	
부바네 스와르	제철 : 1 총 1개사	POSCO	기타 지역	화학, 발전 등 총 3개사	LG화학, 한전기공
총계			약 417개사		

- 델리, 첸나이, 뭄바이를 거점으로 400여개사 진출
- 투자액기준 70%가 대기업투자이나 중소기업투자도 지속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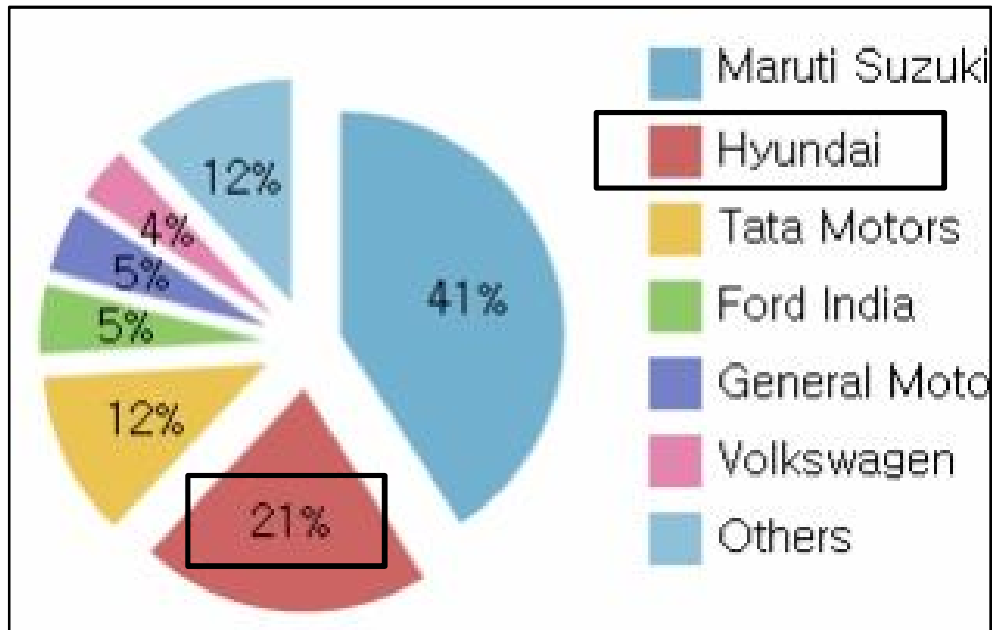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프로젝트>

- 투자 금액 : 총 120억 달러 규모로 3단계에 걸쳐 투자
 - 광양제철소 규모 제철소 건설(1,200만 톤 규모, ※광양1800만톤)
 - 제철소 뿐 아니라 철도, 도로, 전용항구, 발전소, 용수시설 등의 인프라도 같이 개발 (약 4,000에이커)
-
- 포스코: 오리사 외에도 카르나타카(600만톤), 자르칸드(300만톤), 마하라슈트라주 철강산업단지 등 동시다발투자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 지속적 투자확대



가전,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기업 대활약

<인도 승용차시장 시장점유율(2011)>



<인도 가전분야별 시장점유율(07~10)>

평판TV	1. LG(32.5%)
	2. 삼성(27.5%)
세탁기	1. LG(27.2%)
	2. 삼성(21.3%)
전자레인지	1. LG(31.6%)
	2. 삼성(22%)
냉장고	1. LG(26.6%)
	2. 삼성(22.5%)
스마트폰 2011)	1. 삼성(41%)

- 현대자동차, 승용차부문 2위(21%)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도 가전시장 석권
- 삼성전자 인도 스마트폰 시장 석권(41%)

아시아종묘(주), 인도에 현지법인 설립

500만불 수출...신품종 육성 중점

2011년 06월 27일 (월) 00:00:00

원예산업신문 ☞ webmaster@wonyesanup.co.kr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대표이사 류경오)는 지난 16일 인도 뱅갈로에 현지법인 'ASIA SEED INDIA PRIVATE LIMITED' 설립수속을 마쳤다고 밝혔다. 인도 수출시장개척 19년째인 아시아종묘(주)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미화 약 200만불을 수출했으며 금년 수출목표액으로 500만불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 아시아종묘의 인도 현지법인 운영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며 9월 현지 연구농장 개설과 함께 토마토, 수박, 고추, 오이, 멜론 신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게 된다. 류경오 대표이사는 인도 현지에서 육종연구농장을 운영해 동남아 및 중동국가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 국내 육종 중인 품종들의 세대단축과 순도 검정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종묘회사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시아종묘가 두 번째로서 앞으로 국내 종자기업의 해외 진출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경한 기자

입력: 2011-12-23 06:41 / 수정: 2011-12-23 06:41

동부제철, 인도 델리에 현지법인 설립

동부제철이 인도 델리에 현지법인 동부인디아를 22일 설립했다. 회사 측은 "인도의 연간 철강 소비량은 작년 기준 약 6000만에 달하며 소비량이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동부인디아를 발판 삼아 인도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제철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태국 현지에 컬러강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도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철강제품 매출 중 수출 비중을 올해 40%에서 내년 45%로 높일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서비스업 및 유통업 등으로 진출분야 확대

- 보험사, 호텔, 어린이치과 등 서비스업의 진출 확대
- 규제완화에 따라 소매업진출도 확대 전망

<인도 투자진출 기회요소>

- **풍부한 노동력** : 12억 1천만명의 인구, 평균연령 26세 (중국 35세)
- **거대한 내수시장**: 중산층과 지방경제의 부상
- **본격화된 경제성장**:
 - 금융위기 전까지 9%대 성장, 이후에도 연6~8%성장
-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변동성이 적은 경제정책**
- **FTA의 적극적인 추진**: 싱가포르, 아세안, 일본, 한국, EU
- **세계 제일의 소비자신뢰지수 (2011, 닐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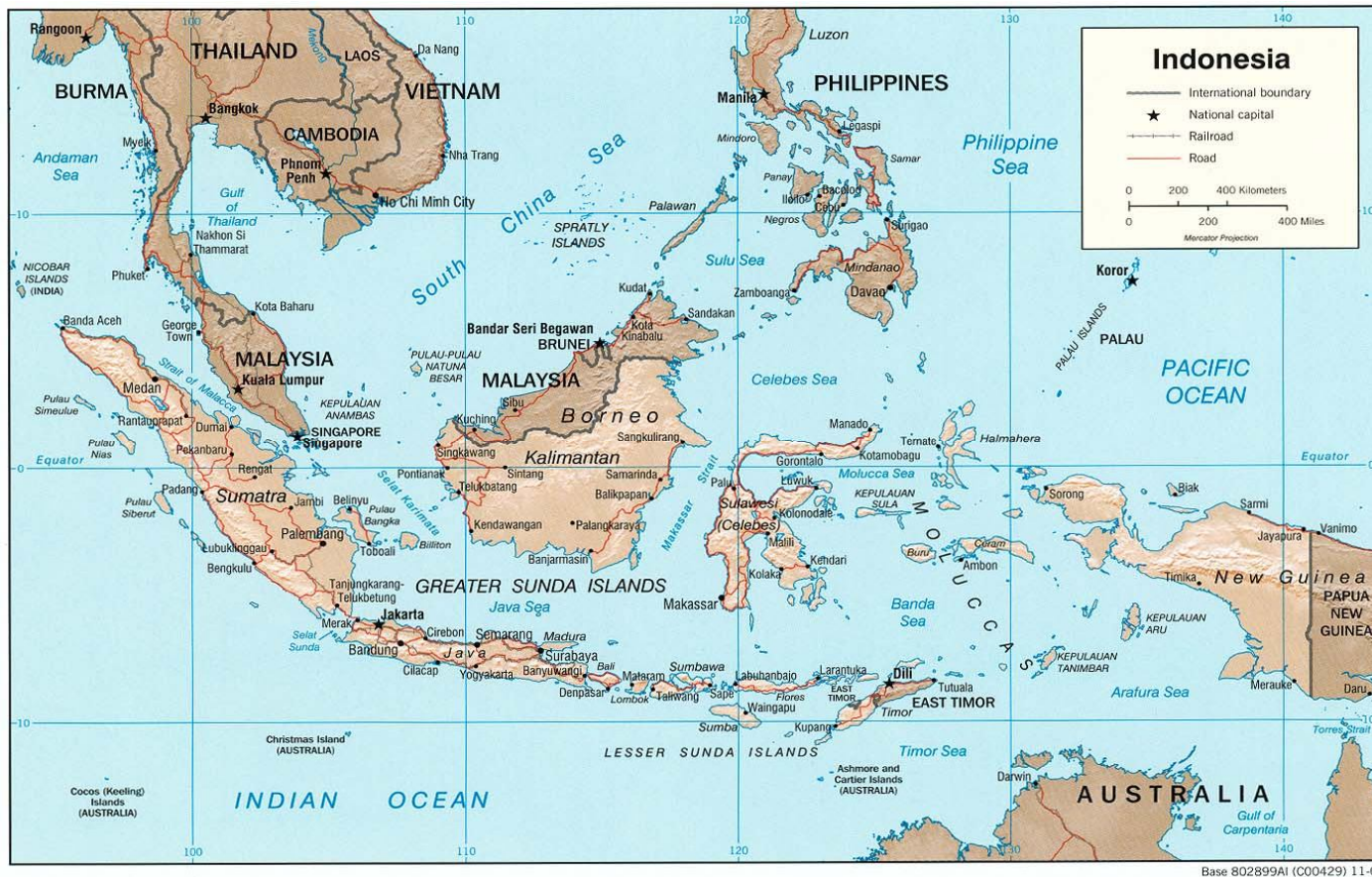
<인도 투자진출 위협요소>

- **열악한 인프라**: 전기부족률 7~8%, 도로, 항만, 용수 등
- **빈곤·극빈계층**: 문맹인구 3억명, 빈곤선이하인구 37%
- **극심한 관료주의와 부패, 복잡한 조세제도, 인건비 상승(연17%)**

4 아시아 3대 주력 신흥시장

2) 인도네시아 진출환경

인도네시아 개황-1



면적 : 남한의 19배 (191만 km²), 인구 : 2억4천만명
종족 : 자바인(40.6%), 순다인(15%), 마두라인(3.3%) 등
GDP : 7148억불, 1인당GDP: 3,004불 (2010)

인도네시아 개황-2

경제성장률	6.1 % (2010)
실업률	7.14% (2010년 8월 기준)
물가상승률	6.96%
화폐단위	Rupiah(Rp)
환율	US\$1 = Rp 9,152 (2012년 3월)
외환보유고	US\$ 962억 달러
산업구조	석유, 가스 산업, 농업, 제조업 등
교역규모	US\$ 2,935억 (수출 US\$ 1,578억, 수입 US\$ 1,357억)
주요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혁제 ○수입: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유기 화학 제품
종 교	회교(87%), 기독교(6%), 카톨릭(3%), 힌두교(2%)
도 시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발리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25-28도)

I 거대 인구

● 2억 4천만 인구 보유

- 40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
- 인구의 70%가 연소득 1,000불 미만 저 소득층
- 인구의 10%인 상류층은 선진국 형 소비패턴

II 막대한 화석연료

● 석탄

- 세계 1위의 유연탄 수출국(Sumatera와 Kalimantan에 집중)

● 석유/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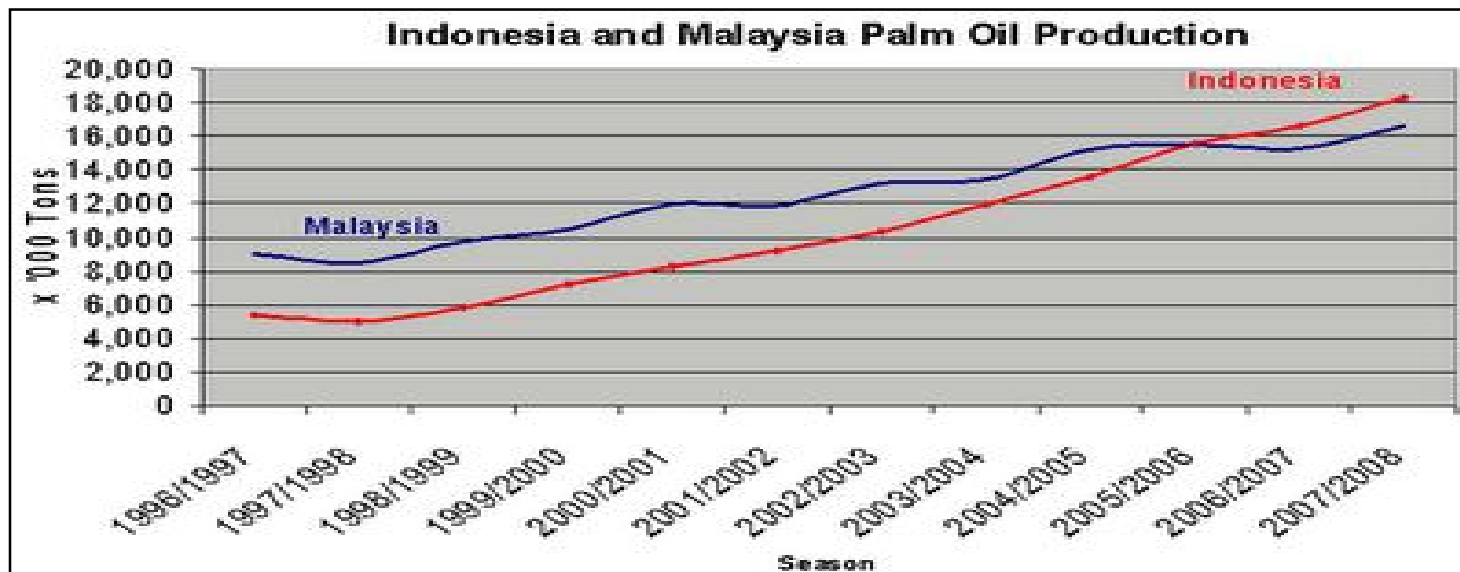
- 석유와 가스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

● 기타 화석연료

- 주석, 니켈, 보크사이트, 금, 주석 등 보유

III 풍부한 농업 자원

- 팜 오일, 고무, 카카오, 커피 등 국제 Commodity 시장 주도
 - 팜 오일: 2009년 세계 1위 생산국으로 도약
 - 고무 · 카카오: 태국 및 Ivory Coast에 이어 세계 2위 생산국
 -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4위의 커피 생산국
 - 이외 Cassava, Sugar Cane, Rice 등 다양한 작물 생산



인도네시아 경제의 특징-3

IV 경제는 화교가 주도

- 5%인 화교가 경제 주도(200대 기업중 화교기업 115개)
 - 국영기업을 제외할 경우 화교가 실제 70% - 80% 를 차지

V 자바인의 경우, 온순하며 거절을 잘 하지 않고, 느긋함



본격화되는 경제성장

» 2010년 및 2011년 경제성장률: 6%대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f
GDP (U\$억)	4,320	5,108	5,280	7,148	7,946
실질경제성장률 (%)	6.32	6.1	4.5	6.1	6.3
수출 (억 달러)	1,141	1,370	1,164	1,578	-
수입 (억 달러)	744	1,291	968	1,357	-

» 외국인 투자의 꾸준한 증가세

2010년		2011년	
건수(건)	유입액 (억불)	건수(건)	유입액 (억불)
3,081	162	4,894	195

<2012 년 국가별 투자규모>

국가	건수	금액(억불)
싱가포르	754	51.2
일본	468	15.2
미국	91	14.9
네덜란드	134	13.5
대한민국	524	12.2

2011년 對인니 수출 52.5% 증가

- 우리나라의 7대 수출대상국, 7대 수입대상국
- 주요 수출품목 : 석유제품, 편직류, 철강, 고무, 중장비, TV 등
- 주요 수입품목 :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천연고무 등

» 연도별 교역규모 증가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교 역	14,884	19,254	15,263	22,883	30,780
(증감율)	8.5%	29.4%	(△20.7%)	49.9%	34.5%
수 출	5,771	7,934	5,999	8,897	13,564
(증감율)	18.4%	37.5%	(△24.4%)	48.3%	52.5%
수 입	9,114	11,320	9,264	13,986	17,216
(증감율)	3%	24.2%	(△18.2%)	51%	23.1%
무역수지	△3,343	△3,387	△3,265	△5,089	△3,652

» 자원개발 (광물자원/에너지자원)

- 금속광물, 에너지 자원 풍부
- 신광업법 발효로 외국인 투자 범위/책임 확대

» 발전/전력사업

- 발전소 93개 건립
 - 지열 39%, 석탄 33% 비중

» 농산물 자원 개발

- 팜오일 세계1위, 카카오 세계2위, 커피 세계4위 수출국

» 유통 사업

- 현대식 유통매장 급성장, 명품 패션&프리미엄 자동차 판매 증가

❖ 종교(이슬람) 관련 금기

- ✓ 이슬람 관련 인물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비하 금지
- ✓ 술과 돼지/개고기/갑각류 등 금기 음식 주의
- ✓ 악수나 물건 전달시 왼손 사용 금지
- ✓ 사원이나 공공기관 방문시 반바지 착용금지

❖ 관행상 금기

- ✓ 머리에 손대지 말 것 (신성한 영혼의 보금자리)
- ✓ 대화 중에 허리에 손을 얹거나 주머니에 손넣지 말 것
- ✓ 집게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지 말 것
- ✓ 화교계의 경제주도에 대한 언급 삼갈 것

❖ 거래의 서면화

- ✓ 유럽국가들의 식민통치로 제도 및 관행 유사
- ✓ 문서송수신시 문서번호 확인
- ✓ 클레임 문서에 대한 서면 대응 필수

❖ 신용 중시

- ✓ 화교비즈니스문화와 유럽식 교역문화의 접목
- ✓ 업계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역할

❖ 모호한 의사표현과 의사결정 지연

- ✓ 상황에 따른 결정변화에 수동적인 태도
- ✓ 완곡한 어법 구사

▶ 경제기여도

- 1,300여개의 한국기업이 약 50만명 이상 고용 창출
- 인니 해외수출(09년 1,170억불) 중 약 100억불(9%) 기여
- 고부가가치 분야 투자 증대 추세

▶ 진출특징

- 현지 생산, 해외수출이 인니 초기 투자형태
- 현지 진출 대기업과 동반 진출(삼성, LG)
- 내수시장 공략 시작, 현지화 강화 추세

❖ 주요 대기업

- KORIND, KIDECO,
삼성, LG, SK,
CJ, 미원, 롯데,
포스코, 한국타이어

부문	업체수	부문	업체수	부문	업체수
(제조업)	(952)	종이목재	50	음식숙박	112
의류 봉제	217	통신 컴퓨터	45	도소매	84
섬유	108	건설선박	45	무역금융	51/71
금속기계	81	가발악세사리	36	여행사학원	33/39
전기전자	72	출판인쇄	27	미용실	34
석유화학	57	농임수산업	19	컨설팅	36
신발완구	56	연마제 등	21	차량정비	19
고무플라스틱	54	광업	19	기타	12
운송창고	50	(기타서비스)	394	총계	1,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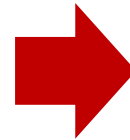
최근 한국기업 진출현황

기업명	주요활동
포스코	- '10년 8월 인도네시아 국영제철회사(Krakatau Steel)와 JV 계약 체결 및 진출
한국타이어	- 자카르타 인근 피카랑(Cikarang) 지역에 타이어 생산 공장을 설립중
키움증권	- '10. 6월, 인도네시아 동서증권 인수계약 체결
세고비아기타	- '10.11월, 수라바야 인근 공장 인수계약 체결 후 생산 준비중
[주]엘지상사	- 광업(석탄), 임업관련 서비스업 진출 (우드 칩, 우드 펠릿)
세아상역	- 인도네시아 수방(Purwakarta) 지역에 봉제 및 염색 가공공장 설립
SKT	- 인도네시아 최대 유선통신업체인 Telkom과 멜론서비스(음악 콘텐츠 제공)
오로라월드	- 자카르타 인근지역에 캐릭터 완구 공장 추가 설립 추진
한국신용정보	- 인도네시아 D&B와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위한 합작 법인 설립 예정
롯데마트*	- 인도네시아 마크로 인수 후 현재 22개 점포 운영 중
롯데백화점	- 2013년 롯데백화점 1호점 설립을 위해 현지 업체와 임차계약 체결 (Ciputra World)

對인니 투자진출 패러다임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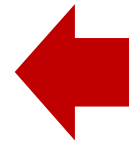
〈1970년대: 자원〉



〈1980년대: 노동1〉



〈2010년대: 시장〉



〈1990년대: 노동2〉

인니 투자사례 (The Faceshop)-1



- 2005년 Plaza Indonesia에 1호점 오픈
- 현재 28개 매장 운영



● 우수한 파트너 선택

- 인도네시아 독점 수입/유통업자로, PT. Perdana Duta Persada 선정
- 인도네시아 전체에 28개의 The Face Shop 매장 운영중
 - * DKI Jakarta내 매장수는 총 17개(2개 제외 모두 직영)
- 모든 매장은 전부 대형 쇼핑몰 안에 입점

● 소비자 성향 분석

- 흰 피부에 대한 동경을 활용, 모든 제품에 미백효과 홍보
- 자연주의 화장품 이미지 제고
- 한국 본사 출시 제품에 대한 수입업체의 제품 선택권 부여

● 한류의 적극적인 활용 및 직원관리

- 한류 적극활용, 매장 전면에 한류 배우 광고 사진(김현중)
- 한류 배우 초청 마케팅 행사 개최
- 한국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모든 매장의 직원은 모두 정 직원으로 직접 관리



● 전략적인 매장 위치 선정 및 상품 구성

- 전략고객(10대후반-40대 여성), 화교들이 많은 지역 입점
 - 스킨케어, 미백화장품 등을 매장 중심에 전략적으로 배치
 - 피부관리 전문가(Skin Care Expert)라는 컨셉 활용
- * 4개 매장에는 피부관리실을 별도로 운영



● 시장 선구자의 알려진 이름을 역이용

- 신규매장을 The Body Shop매장에 접근 배치
(유사회사 이미지 제고)
- 자연주의 컨셉이지만 The Face Shop은
얼굴제품에 특화되었음을 강조



● 한국 본사의 효과적인 지원

-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을 위해 신규 제품 출시 시 모든 서류 구비하여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증 처리후 인도네시아 송부
- 정기적인 본사 초청 교육 및 여행제도 운영

4 아시아 3대 주력 신흥시장

3) 미얀마 진출환경

미얀마 개황-1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면적 : 남한의 7배 (67만 km²)

수도 : 네피도(Nay Pyi Taw)

**위치 : 아세안, 인도, 중국 사이
[전략적 요충지]**

인구 : 5,838만명(2009년)

인종 : 버마족(70%)

종교 : 불교 89.4%,

정치 :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 페인 세인대통령
[2011년 4월 취임]**

미얀마 개황-2

GDP	US\$ 317억(2010)
실질 경제 성장률	3.3%(2010)
1인당 명목 GDP	US\$ 543(2010)
물가 상승률	9.4%(2010)
화폐단위	Myanmar Kyat(Kt)
환율	US\$1 = Kt 770 (2011년 9월)
외채	US\$ 79.9억(2010)
외환 보유고	US\$ 37.6억(2010)
산업구조	농업(39.9%), 공업(22.6%), 서비스업(37.5%)
교역규모	수출: US\$85.9억, 수입: US\$42.3억 (2010)
교역품	수출: 천연가스, 목재류, 콩류, 섬유류, 수산물 수입: 기계·운송장비, 정유, 철강·금속, 섬유류

미얀마 경제의 특징-1

» 넓은 국토, 양질의 노동력

▶ 국가별 국토면적

(단위: Thousand km²)

국명	면적 (2009)
Brunei Darussalam	6
Cambodia	181
Indonesia	1,860
Lao PDR	237
Malaysia	330
Myanmar	677
Philippines	300
Singapore	0.7
Thailand	513
Vietnam	331
ASEAN	4,436

* 출처: 아세안 사무국 (주요 기초 지표, 2009)

▶ 인구

(단위: 백만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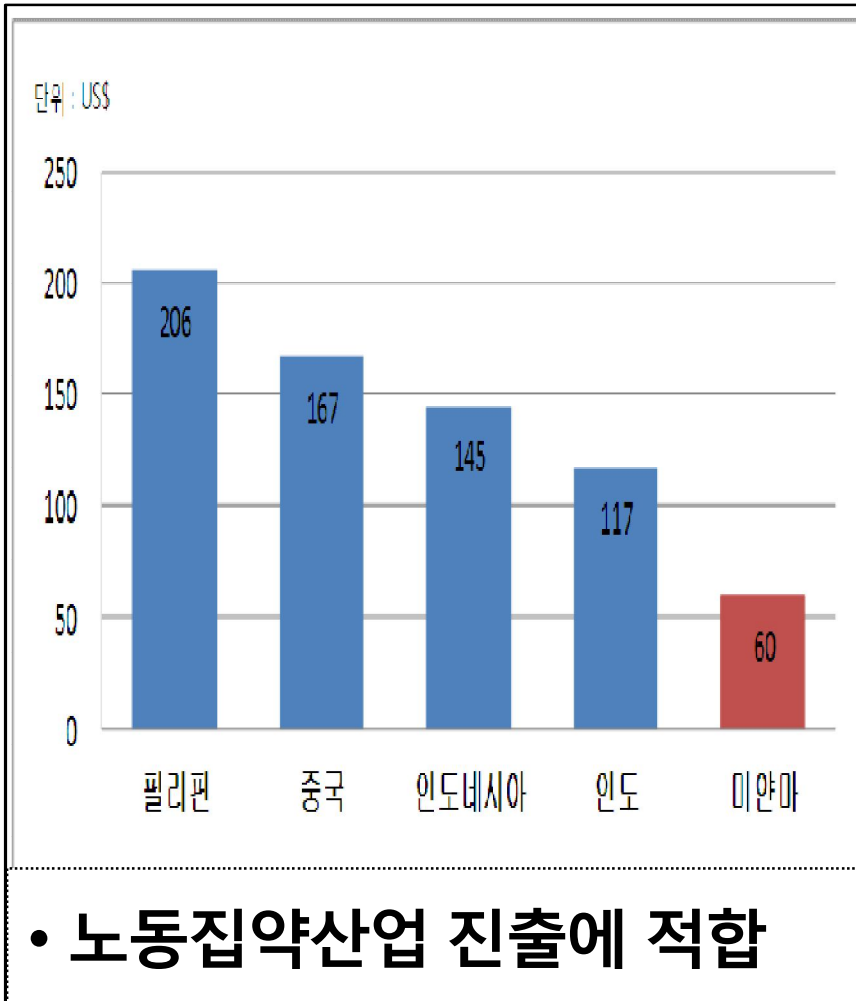
국명	인구수 (2010)	비율
Brunei Darussalam	0.4	0.1
Cambodia	14.3	2.4
Indonesia	237.6	39.6
Lao PDR	6.4	1.1
Malaysia	28.3	4.7
Myanmar	61.2	10.2
Philippines	94.0	15.7
Singapore	5.2	0.9
Thailand	63.9	10.7
Vietnam	88.3	14.7
ASEAN	599.6	100

* 출처: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 2011.9)

- 아세안 중 면적 2위, 전체 아세안 인구의 10%

미얀마 경제의 특징-2

» 동남아 최저 임금



» 미개발 자원의 보고

광물명	미얀마 매장량	세계1위 매장량
석탄	3.9억톤	브라질 160억톤
철광석	7.2억톤	미국 2460억톤
구리	11억톤 (비공식)	칠레 1.5억톤
아연	532만톤	중국 3,300만톤
니켈	43백만톤 (비공식)	호주 24백만톤
우라늄	40만톤	호주 74만톤

미얀마의 중요성과 사업기회-1

◇ 49년간의 군정종식과 민주화조치로 美 경제제재('03.7월~) 해제 임박

- '62년 군정 이후 최초 민간정부 수립('11.4월)
- 아웅산 수치 활동재개 허용('12.4월 보궐선거 출마)
- 美 국무장관('11.11월), 영국, 호주 외교장관('12.1월) 미얀마 방문
- * '13년 동아시아게임, '14년 아세안+3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

◇ 新정부의 경제 개혁, 개방정책 박차로 본격적인 경제자유화 추진

- 경제특구법(3개소 설치), 외국인투자법, 노동법 정비로 투자환경 개선
- 민간은행 설립허가, 정부자산 매각, 주유소 민영화조치 시행



□ 인구 6천만의 내수시장 보유 및 인접시장과의 연계무역 가능

- 양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흥 중산층** 형성 중
 - * 1인당 GDP 규모는 543달러 수준이나, 급속도로 개선될 전망
- 중국, 인도와 접경하고 있어 동·서남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 미얀마-중국 '11년 교역액은 20.5억달러

□ 중국, 베트남에 이어 차기 유력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 전망

- 제재 해제 이후 미국·유럽 수출 재개로 **전략적 활용가치 증가**
 - 서방 경제제재 이후 무역·투자가 이전 대비 50% 감소
- 저임 노동력 보유로 중국·베트남의 **인건비 한계상황** 극복 가능
 - 초임기준 월**70~75불**로 주요 생산 기지국 대비 높은 경쟁력 보유
 - * 중국(300~400불), 인도(200~300불), 베트남(100~150불) 등

□ 경제제재 해제 이후, Infra Project 시장 급성장 전망

- 미국, 유럽의 인프라개발 본격 추진
- **(항만·도로) 경제특구 3개소**를 중심으로 개발
 - 남부 드웨이 심해항만·산업단지 개발 (140억달러 규모)
 - 서부 짜욱푸 심해항만 개발 프로젝트
 - 양곤 내항인 뿔라와 항구 (5만톤급 접안 가능토록 개발)
- **동서 횡단 자원 수송로 및 전력인프라 확충**
 - “운남성(중국)↔짜욱푸(미얀마)” 원유·가스 수송관 공사 진행
 - * 중국은 동 수송관을 통해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전과
중동산 원유 수송 계획

» 에너지/광물 자원

- 원유, 천연가스, 6대 전략 광물자원 대량 보유
- 서방 메이저 개발업체 활동 전무

» 노동집약적 산업

- 풍부한 저임 노동력 활용
 - 섬유 봉제, 신발, 가발, 전자조립 등 유망

» 농업

- 천혜의 농업 생태 환경 보유 -다양한 기후대

» 전력 산업

- 수력발전에 크게 의존(67%) , 송배전망 관련 프로젝트 유망

» 목재 가공산업

- 미얀마 전 국토의 52%가 산림지역
- 전 세계 티크(Teak)의 75%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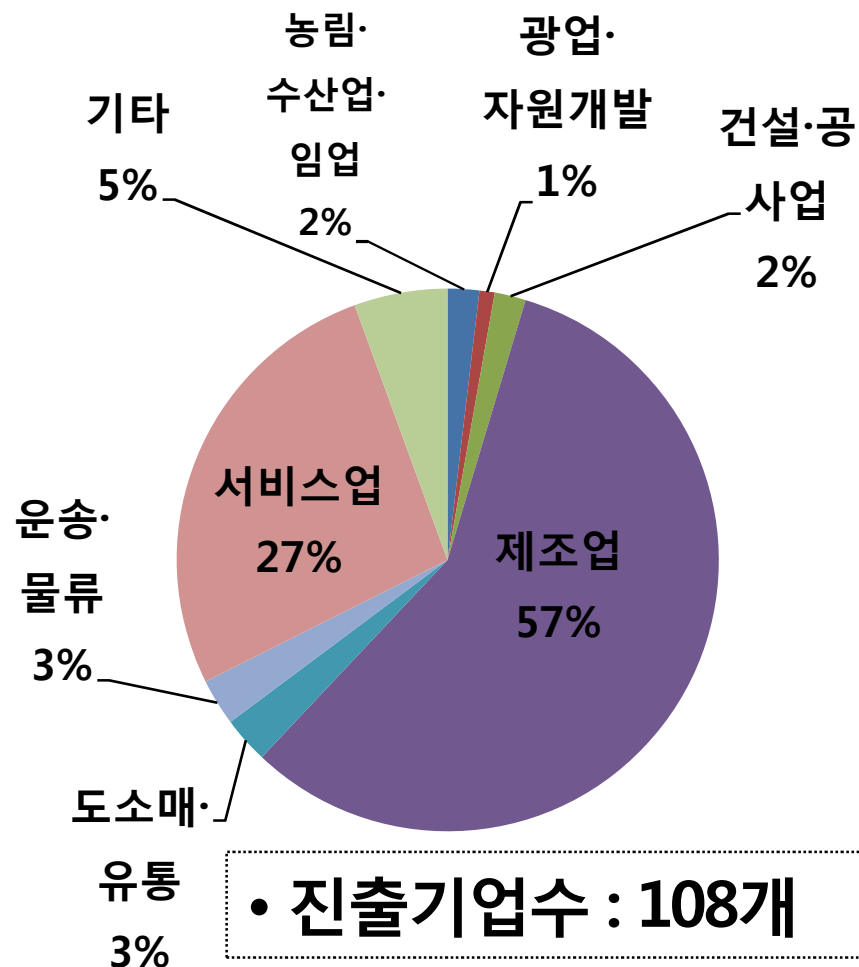


» 프랜차이즈 및 유통 서비스

- 서방 경제제재로, 맥도날드, KFC 등 프랜차이즈 진출 전무
- 한류를 활용한 한식 프랜차이즈
 - 진출성공사례 : 문베이커리
(양곤 10호점, 네피도 1호점 오픈)



» 미얀마진출 한국기업현황



» 투자사례

- 미얀마 포스코
 - 아연도금 강판 및 평판
- 대우합판
 - 합판 생산 및 수출
- 미얀스타
 - 섬유 및 봉제
- 대우 인터네셔널
 - 해상 천연가스 개발
- 대우 합판
 - 합판 생산 및 수출

□ 외국인 투자는 전력, 석유가스,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

- 총 98개(육상 47, 해상 41개)의 가스·원유 광구 개방
 - 육상 광구는 외국인투자 불허
 - * 중국 등 주변국 선별적 허용 (외교적고립 탈피용)
 - * 육상광구 : 중국 3개, 인도 1개, 인니 1개, 홍콩 1개 등 12개 광구
 - 해상 광구는 우리나라 포함 인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9개국이 30개 탐사중
- 광물자원은 개발부진 상황이나 구리, 니켈 개발시작
- 수력, 가스터빈 위주의 발전 프로젝트 추진중
 - 2031년까지 373억불 투자계획
 - 중국이 솔레이리버 등 20여개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 중

□ 접경국인 중국, 인도가 인프라개발 및 자원 확보에 공격적 투자

○ (중국) 에너지, 자원개발, 전력생산 등 전방위 투자

- 외국인 1위, 28%점유
- 수력발전 20여개 프로젝트 추진 및 천연가스 광구개발
- 제 3광업공사와 니켈광 합작개발 등 **전략광물** 확보에 주력
- “**운남성→미얀마→짜옥류**” 연결 가스관(도로-철도) 건설 등

○ (인도) 항만개발, 도로건설,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초점

- 서부 지역 전력망 확충, 송전선 설치 및 전력케이블 공장설립 추진
- **인도 국경↔시트웨항 연결** 도로 건설

○ (일본) 최대 무상 원조국으로 부동산 분야에 집중 투자

○ (태국) 남부 드웨이 심해항만 개발과 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

5 **신흥시장 진출방안**

1. 한류의 적극적 활용

» 인도네시아

- 문화현상을 넘어서 비즈니스한류로 진화(채선당, 롯데마트 등)



» 미얀마

- 한류 드라마 열풍 (2002년 이후 총 약 90편 - 주 6편 방영)



2. FTA를 활용하라

» 인도 (한-인도 CEPA)

✓ 전체 품목의 71.5%가 8년에 걸쳐 관세철폐

구분	E0 즉시철폐	E5 5년철폐	E8 8년철폐	소계	RED 8년감축	SEN 민감	EXC 제외
수입액	38.5%	14.0%	22.1%	74.6%	8.5%	2.4%	14.5%
품목수	3.9%	3.4%	64.2%	71.5%	8.8%	5.0%	14.7%

» 아세안 (한-아세안 FTA)

- ✓ 아세안6에 대해서는 일반품목군 관세철폐 완료
-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2018~2020년 철폐완료
- ✓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개별 FTA 추진중

3. 인프라프로젝트 적극 참여

» 인도

- ✓ 연 1000억불 이상을 인프라 개선에 투자
 - 지하철, 전력, 도로, 공항 등
- ✓ 평시전력부족율 7~8%, 피크타임 전력부족률 12-13%

» 인도네시아

- ✓ IEDC :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추진
 - 인도네시아 전역을 6대 개별권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개발

» 미얀마

- ✓ 미얀마 남부 드웨이 심해항구 및 산업단지 개발(140억불)
 - 심해항구, 산업단지, 신도시, 발전/연결도로/수처리 등

4. 2012 신흥국 리스크

● 수출 둔화,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등 리스크 요인 발생

구 분	2012년 신흥국 전망	리스크 판단 기준	해당국가
수출 둔화	신흥국 간 교역은 강화되나 선진국 수출 감소세를 상쇄 하기는 역부족	對유로존 수출 비중	동남아
물가	정부의 '성장중시'정책으로 인플레 압력 지속	물가목표치와의 차이	인도
정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심리 위축가능성	정치안정 지수	인도

- 동남아 지역의 수출둔화여부
- 인도는 정치리스크(3월 지방선거 등)와 물가리스크 주의

5. 문화적 차이에 주의

- ✓ 협의는 항상 의사결정자와 진행
 - 신흥국 전반적으로 담당자 권한이 적음
- ✓ 주요 협의사항은 항상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
 -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저신뢰국가
- ✓ 주석이나 조건을 잘 살필것 - 문서화에 강함
- ✓ “No”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문화 (인도, 인니)
- ✓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 (불투명, 부패)
- ✓ 에이전트 선정은 신중하게
- ✓ 인도의 경우는 인구 절반이 채식주의자이며,
육류를 먹는 경우에도 쇠고기, 돼지고기는 금함

6. 『Doing Business 2012』로 살펴본 진출리스크

» 인도 – 132위 (183개국중)

- ✓ 사업개시 : 166위 (전기연결에 67일 소요)
- ✓ 세금납부 : 147위 (연 254시간 소요, 납세율 61.8%)
- ✓ 계약이행 : 182위 (계약이행에 1,420일 소요)

» 인도네시아 – 129위 (183개국중)

- ✓ 사업개시 : 155위 (전기연결에 108일 소요)
- ✓ 세금납부 : 131위 (연 266시간 소요, 납세율 34.5%)
- ✓ 계약이행 : 156위 (계약이행에 570일 소요)

» 미얀마 – 조사대상에서조차 빠짐

감사합니다